



‘호주 프레스티지 와인의 대표 브랜드’

## 펜폴즈 맥스 까베르네 소비뇽

Penfolds MAX's Cabernet Sauvignon

지역	남호주 > 맥라렌베일		
포도품종	까베르네 소비뇽 100%		
알코올	14.5%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5-18℃		
테이스팅 노트	핑크 페퍼콘과 불에 그릴드한 단호박의 고소한 풍미가 느껴진다 삼나무와 라벤더 등의 식물향이 은은하게 감돌며 조화를 이룬다. 크렌베리류의 레드 프루츠 풍미에 뿌리채소에서 느낄 수 있는 얼씨(earthy)한 흙내음이 후각과 미각을 사로잡는다. 정제된 탄닌감은 깔끔한 마무리감으로 완성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복합미가 더해져 호주 프레스티지 와인의 고급스러움을 자아낸다.		
페어링 TIP	소고기/양고기/파스타/치즈		

#호주 #프리미엄



### 제품설명



펜폴즈 '맥스' 브랜드는 호주 국보 와인 '그랜지(Grange)'를 양조한 와인 메이커 '맥스 슈베르트(Max schubert)'를 기리며 만든 프리미엄 제품으로 펜폴즈 와이너리의 집약된 와인 양조 노하우와 퀄리티를 여실히 경험할 수 있다. 맥스는 1948년부터 1975년까지 펜폴즈의 수석 와인메이커로 펜폴즈와 호주를 대표하는 아이콘 와인 '그랜지(Grange)'를 양조했다. 맥스는 와인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으로 와인의 pH 컨트롤과 화이트와인의 저온 와인 안정화라는 혁신적인 와인메이킹을 주도, Member of the Order of Australia', In 1988 Man of the Year by Decanter로 선정된 바 있다.

\*호텔 · 레스토랑 전용

### 와이너리



호주 국보급 와인으로 꼽히는 펜폴즈(Penfolds)는 1844년 영국에서 호주로 이주한 크리스토퍼 로손 펜폴즈(Cristopher Rawson Penfolds)가 치료 목적으로 와인을 처방하기 위해 와이너리를 건립하며 역사가 시작된다. 빈티지에 따른 와인 맛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특유의 멀티 리저널 블렌딩 기법 도입, 제품별 pH 도수 확인 등 호주 와인 역사의 한 획을 그으며 '그랜지(Grange)'를 비롯해 뛰어난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왔다.

펜폴즈의 대표 와인은 '그랜지(Grange)'로 전세계 와인 애호가 손꼽는 명주로 꼽힌다. 호주의 국가문화재로 등재되어 있으며 1951년 생산한 이래 지금까지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로버트 파커는 '그랜지'를 가리켜 "지구상의 가장 뛰어난 레드와인"이라 찬사를 쏟은 바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렌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